

정부, 낙농가, 유업체가 삼위일체되면 낙농미래는 밝다



김윤식

충남 자조금 추진위원

“

우리가 여기서 일어날 길은 정부·유업체의 낙농인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힘을 모으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낙농인들의 살아나고자 하는 굳은 결의와 행동이 중요할 것이다.

우리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밝은모습으로 용기를 잃지 말고 슬기롭게 이겨내자. 낙농의 미래는 밝을 것이리라 확신한다.

”

IMF한파와 함께 힘겨루기나 하듯이 닦쳐온 수해로 우리 모두 힘들기만 한 때이다.

여기저기 늘어가는 실업의 고통과 함께 발 맞추기라도 하듯이 우리 낙농인들의 어려움 역시 말로 다 하기에는 크기만 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에서 주저앉을 수만은 없는건 분명한 일이다.

다시말해 지금과 같은 고통의 시대를 다시는 반복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능동적인 문제해결 자세가 필요한 때라 사려된다.

축산업에 근 20년간을 몸 담고 지금까지의 발전행로를 함께 걸어온 사람중의 하나로써 지금의 일에 닥치고 보니 정부와 민간 모두가 대책없는 정책앞에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해 온것이 아닌가하는 뒤늦은 탄식도 하게 된다.

반세기가 가깝도록 정부의 축산업에 발전의 노력으로 빛나는 발전을 이룩한것도 사실이나 사실상 그 결과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정책으로 빛좋은 개살구격이 되어

버렸다.

낙농전문기관이나 육우 전문분야 없이 UR이나 WTO협상에서 마저 불리한 입장에 직면하고 보니 그동안 정부로 부터 지원받아 시설한 각종 자금을 갚을 길이 없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주저 앉을 수도 없다.

앞으로는 정부만 의존할 시기도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낙농인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힘을모아 이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뜻으로 지난 7월에 낙농육우협회에서 우유 1kg당 5원씩을 자조금으로 마련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낙농인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생산과 소비까지 신경을 써야 할때가 된 것 같다. 그동안 유업체는 자사의 상품홍보에 주력하면서도 우유 소비의 당위성에 관련한 미약한 점이 많지않나 생각한다.

우유를 마시면 몸에 좋다는 인식은 국민 누구나가 갖고있는 것이지만 좋다는 의미가 너무나 막연한데 우유 소비는 잘 늘지않고 있

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유의 소비층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우유를 기호식품 정도의 가벼운 음료로 인식하는 대중을 우유의 섭취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해야 하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는 유업체의 노력과 함께 권위있는 박사나 연구진들의 유질분석자료가 필요할 것이며 끊임없이 마스크를 통해서 홍보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은 낙농인이 피땀흘려 모은 자조금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앞서 말했듯 우리가 여기서 일어날 길은 정부·유업체의 낙농인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힘을 모으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낙농인들의 살아나고자 하는 굳은 결의와 행동이 중요할 것이다.

우리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밝은모습으로 용기를 잃지말고 슬기롭게 이겨내자. 낙농의 미래는 밝을 것이리라 확신한다. ⊕